

문 대통령 "북녘고향 두고온 분들, 가족과 함께할 수 있게 노력"

기사입력 2020-01-23 15:04 최종수정 2020-01-23 15:42

설 명절 인사..."국민 모두 '확실한 변화' 체감하도록 부지런히 뛰겠다"



새해 인사하는 문 대통령(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설 연휴를 앞두고 청와대에서 국민에게 새해 인사를 하고 있다. 2020.1.23 [청와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설 명절을 맞아 "북녘에 고향을 두고 온 분들이 더 늦기 전에 가족과 함께하실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00:00 01:40

자동

문 대통령은 이날 '새해 인사 영상메시지'에서 "명절이면 그리움이 더 깊어지는 분들이 계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이 설 명절 메시지에서 실향민을 언급한 것을 두고 북한 개별관광을 포함한 남북교류 사업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통일부의 '개별관광 참고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 이산가족 또는 사회단체의 금강산·개성 지역 방문 ▲ 제3국을 통한 한국민의 북한지역 방문 ▲ 외국인의 남북 연계관광 허용 등 세 가지 형태의 개별관광을 검토 중이다.

이런 협력 사업을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개선해 한반도 평화를 앞당기겠다는 구상을 문 대통령이 설 메시지에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또 "올해는 국민이 모두 '확실한 변화'를 체감하면서 희망을 키울 수 있도록 더 부지런히 뛰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작지만 강한 나라"라며 "어떤 어려움도 이겨왔고 많은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할 만큼 발전했다. 우리의 빠른 성장과 역동성, 높은 시민의식과 한류 문화에 세계가 경탄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편안하고 안전한 명절을 위해 묵묵히 일터를 지키고 계신 분들의 노고도 잊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부모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차례상처럼 넉넉하고, 자식 사랑이 떡국처럼 배부른 설날"이라며 "이웃을 먼저 생각해주신 국민들 덕분에 다 함께 따뜻한 설을 맞게 됐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덧돌과 현관문에는 크고 작은 신발이 가득하고 따뜻한 마음을 주고받는

행복한 설날이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새해 인사하는 문 대통령(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설 연휴를 앞두고 청와대에서 국민에게 새해 인사를 하고 있다. 2020.1.23 [청와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hysup@yna.co.kr

▶확 달라진 연합뉴스 웹을 만나보세요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 ▶뭐 하고 놀까? #흥

이 기사 주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001&aid=0011354977>
